

Open Doors

12

2023

VOL.260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

북한의 어린이날

박해와 선교현장

알제리(Algeria)

박해뉴스

Pathways (un)locked

(2023년도 아동청소년 중간 업데이트)

현장스토리

인도 : 여러분은 저희를 돕기 위해 보냄 받은 분들입니다

중앙아시아 : 엘누라가 전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전세계 : 아이들의 단 한가지 성탄절 소원

Heart To Heart

- 나의 성탄절 선물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Merr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Open Doors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COLUMN

국제오픈도어 단 올레 샤니 총재 한국 방문 인터뷰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 하는 일, 교회와 세상을 바꿔"

지난 11월 9일, 국제오픈도어 단 올레 샤니 총재는 한국 오픈도어를 격려하고, 서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단 올레 샤니 총재는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과 한국교회를 향한 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Q: 최근에 심하게 박해 받는 나라들이 있는지요?

A: 북한은 지난 30년 이상 박해를 받는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에서는 주로 폭력, 살인, 고문, 그리고 집들이 불타는 등의 박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박해 국가 목록에서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Q: 박해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 수 있으신가요?

A: 네, 저희 오픈도어는 '월드 와치 리서치'라는 연구 부서가 있으며, 기독교 박해지수를 매년 측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국가에 연구진들을 두고 있으며, 매년 박해지수에 대해 조사합니다. 박해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아니면 그대로인 지요. 그리고 매년 1월에 '월드와치리포트'를 출판하여 공개적으로 제공합니다. 월드와치리포트 연구는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그래 왔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곧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들을 그들은 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박해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믿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알게 된 크리스천에게 믿음을 포기하라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이 믿음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크리스천 박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상, 상승하고 있죠. 두 번째로, 박해는 더욱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향한 제 메시지입니다만, 저희는

언제 박해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각자가 크리스천으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박해는 국가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박해가 닥쳤을 때, 저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증오와 분노로 반응할까요, 아니면 성경이 저희가 반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박해가 오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반응해야 할까요? 정말로 다시 한번 제가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박해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박해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Q: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의미,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요?

A: 위험은 저희의 삶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위험은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저희의 가족, 영적 가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가족을 섬기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고통받을까요? 저희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고통받습니다. 저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Q: 박해속에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지요?

A: 네, 그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꿈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따릅니다. 나라의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곳에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데요. 그러나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곳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꿈에 나타나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비밀리에 크리스천이 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요. 이 사실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시고 계시니까요. 그분은 어떤 종교, 어떤 세력, 어떤 정부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Q: 현지교회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오픈도어는 전세계 교회들과 협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들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분을 알릴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경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도어는 다른 형태의 선교 파송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선교사를 파송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현지 교회들을 강화합니다. 모든 곳에 말이죠.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재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하에 있기도 하지만, 실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지 교회가 더 강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보내신 이유, 곧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Q: 한국교회와 오픈도어가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지요?

A: 그렇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언급했던 성경 공급사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 공급사역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는 좋은 성경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 교회에 기독교 박해에 관한 성경적 교육이 있나요?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성경적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때때로 매우 실질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자란왈라 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집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은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집을 재건축할 수 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은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나이지리아 혹은 오픈도어가 활동하는 65개국 중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을 지원했

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 그리스도인이 나를 생각하는 것일까? 어떻게 나를 지원할 수 있을까? 왜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저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러분의 가족이며,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제 메시지입니다.

Q: 오픈도어 기도주간을 통해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먼저, 저는 한국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오픈도어 사무총장과 함께 한국오픈도어 화요기도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는 기적들 중 많은 경우는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국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둘째, '국제기도의 날 IDOP'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박해 현장을 이해하면서 기도해주세요. 이를 위해 오픈도어는 자료, 월간지,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전세계 많은 개인 및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불가능한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란에서 같이 신앙을 이유로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나이지리아에서 같이 신앙을 이유로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남겨진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듯,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저희 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



[CBS 뉴스] 오픈도어선교회 단 올레 사니 총재,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 하는 일, 교회와 세상을 바꿔"

CONTENTS

05 북한선교현장

- 북한의 어린이날

06 박해와 선교현장

- 알제리(Algeria)

14 박해뉴스

- Pathways (un)locked
(2023년도 아동청소년 중간 업데이트)

16 현장스토리

- 인도 : 여러분은 저희를 돕기 위해 보냄 받은 분들입니다
- 중앙아시아 : 엘누라가 전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 전세계 : 아이들의 단 한가지 성탄절 소원

21 Heart To Heart

- 나의 성탄절 선물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Merr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3년 12월호 | 통권 260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OPENDOORS CORE VALUE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UPPORT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
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
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북한선교현장

북한의 어린이날

6월 6일은 북한의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일”입니다. 비록 북한에는 국경일이 많지 않지만 이날은 공휴일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기념하는 것 같은 평범한 어린이날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의 어린이날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아이들은 왕처럼 대우받을 수 있는 이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어른들은 선물, 음식, 나들이와 같은 것을 통해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이날의 전통입니다. 한편 북한의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일”은 조선소년단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8세부터 14세까지의 북한 학생들은 조선소년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년 단원(Boy Scout)과 매우 유사

해 보이지만 조선소년단의 동기는 더욱 이념적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자기비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 자신의 친구들을 대상으로도 비판을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 교육과 공동체생활능력 향상을 구실로 북한 당국은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력을 위해 아이들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소년단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보통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보다 마른 나뭇가지를 줌거나 들판에서 일 하는 등, 노동을 하도록 보내집니다. 언젠가 북한의 아이들이 부담감 없이 웃음을 짓고, 많은 선물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제대로 된 어린이날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1.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충분한 식량을 통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2.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부담감과 두려움 없이 어린시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당국이 아이들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3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19 위

알제리 (Algeri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종교적 자유 침해에 대한 주요 근원은 사회, 극단적인 이슬람 교사들, 그리고 이러한 교사들의 견해를 고수하는 국가 공무원들이다. 대부분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슬람교 기독교인들은 특히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의 부족 지도자들과 연장자들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사회로부터 침해에 직면한다. 여러 직급에 있는 국가 공무원들은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부추기기 위해 압박을 가한다. “무슬림의 신앙을 흔을 수 있는” 또는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하기 위한 의도의 꾀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법적인 금지를 포함해 비 이슬람교 예배를 규제하는 법들이 있다. 가족 구성원들과 이웃들이 개종자들로 하여금 이슬람 규범을 고수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차별과 괴롭힘에서 시달린다.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압박과 위험은 특히 나라의 시골 지역과 종교적으로 더 보수적인 지역에서 높다.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과 전도 혐의로 기소 당하고 투옥된다.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다.

알제리 (Algeria)

국가 정보

지도자 : 압델마지드 테본 대통령

인구 : 45,350,000 명

기독교인 수 : 139,000 명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공화국(대통령중심제)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39,000	0.3
이슬람교	44,571,000	98.3
불가지론	606,000	1.3
민족종교	14,400	0.0

알제리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수반인 의원집정부제이다. 그러나 알제리는 사실상 강력한 군대와 “Le Pouvoir” (권력)이라는 엄선된 강력한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집단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알제리는 독재적이고 자유롭지 않은 나라로 평가를 받았다. 2020년 11월 1일에 새롭게 입안된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열렸다. 그러나 사상 최저의 투표율(23.8%)은 알제리인들이 실제적인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6년 3월에 통과된 조례 06-03은 비이슬람교의 예배를 심하게 제한한다. 정부는 집행 이래 새로운 교회들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기독교인들은 가정집 또는 사업 소유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 이는 최대 3년의 징역형과 300,000 디나르(3,000 유로)의 벌금과 함께 금지되어 있다. 2017년 11월부터 조례는 알제리의 개신교 교회들의 상부 기관인 알제리 복음주의개신교협회(EPA)와 관련된 최소 17개의 교회들을 폐쇄하는데

사용되었다. 소셜 미디어와 다른 소통 방법에 대한 정부 통제는 엄격하다. 온라인으로 신앙을 나누는 기독교인들은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몇몇 기독교인들은 신성 모독 및 전도 혐의로 수감 중에 있다.

알제리 기독교인들은 사적, 공적 영역에서 구직할 때 신앙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다. 알제리의 가부장적인 이슬람 규범들의 결과로서 남성과 여성 모두 기독교 신앙이 발각되면 큰 압박에 직면한다. 남성은 집에서 쫓겨나고 여성들은 가정 폭력을 입는다.

알제리인들 중 98.2%로 추정되는 이들은 이슬람교인이며 거의 대부분이 수니파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이다. 1974년에 복음주의개신교협회(EPA)는 공식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속한 교회들은 직접 등록을 받도록 요구당한다. 이를 해낸 교회는 없었다. 2013년에 새로운 비정부기구 (NGO) 법이 도입된 이후로 복음주의개신교협회(EPA)는 승인을 위해 재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신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복음주의개신교협회(EPA)를 법의 사각지대에 놓았다. 헌법은 비이슬람교인들이 정부의 고위직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알제리 헌법과 정부는 ‘국가의 가치관과 풍속에 반하는’ 활동들을 금지하기 때문에 비이슬람교인들과 비종교적 단체들은 박해, 차별, 그리고 편협성을 피하기 위해 근신해야 한다.

지역별 상황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알제리 북부 커바일 지역에서 살고 있다. 커바일 사람들은 아랍 출신의 다른 알제리인들과는 다르게 베르베르 민족이며 자신들만의 베르베어를 사용한다. 커바일 사람들은 수년 동안 알제리 정부에 의해 차별을 받고 방치되어왔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압박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나라의 아랍 지역, 특히 남부의 상황들은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는 거의 없다.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넓은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또한 살라피스트 운동의 증가로 인해 이슬람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

박해 받는 성도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사하라 사막 이남 이주 기독교인들과 일부 서방의 국외 거주 기독교인들을 포함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 학생들은 대학에서 때때로, 그리고 도시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차별에 직면한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배 장소 밖에서는 제한에 직면하지만 교회들은 등록된 곳에서는 있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가톨릭 교회들(알제에 있는 대성당, 대주교 좌를 포함해)은 정부의 간섭 없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알제리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배경을 가진 개종자이며 이들은 국가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차별과 계속되는 압박에 직면한다. 법이 등록된 교회들을 제외한 이슬람 이외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의 대중 집회들을 금지하기 때문에 개종자들은 종교 예배를 위해 가정집에서 보통 모인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이슬람의 탄압:

이슬람은 알제리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독교인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이슬람압박은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압박과 결합되어 기독교인들에게 끈질긴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슬람 단체들은 시민들이 이슬람 신념에서 벗어나 인기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비록 이슬람 구국전선(FIS)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슬람교도들은 더 눈에 띄고 이들은 기독교인들과 다른 비무슬림 소수집단들(소규모의 유대인 집단과 바하이교 공동체들)의 활동들을 감시한다.

독재정치:

이는 기독교인들에 제한을 가하는 독재적인 성격의 알제리 정부에서 분명하다. 폐쇄된 교회들과 기독교 시위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의 늘어나는 수는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압박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폭력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이유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일부 조치들은 사회의 이슬람 분파를 달래기 위한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더욱이, 독립 이후 집권해온 여당의 반식민주의 및 혁명의 근본은 기독교 선교 활동들을 의심하게 하는 이념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는 활동들이 서양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과 관련 있는 경우 특히 더 그러하다.

씨족의 탄압:

이슬람의 탄압은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가족 및 지역사회의 압박의 핵심 과정을 이루지만, 특히 나라의 아랍 지역에서는 “가문의 명예 보호”와 같은 관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지(마을) 어른들의 지지로 개종자가 새로운 신앙을 버리고 가족 및 지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충실히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해 직계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 지역사회로

부터 압박이 가해진다. 도시 지역에서 어른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압박을 가할 더 넓은 지역 사회가 보통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의 압박은 보통 높음을 유지한다.

민족 종교적 적대감:

대부분의 알제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북부에 위치한 커바일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립 이후에 이 지역과 알제리 중앙 정부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있었다. 아랍이 나라의 지배적인 민족 정체성인 한편, 정부와 대부분이 베르베르족인 커바일 지역 거주자들의 어려운 관계에서 민족 정체성, 문화, 그리고 언어적 이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민족 갈등과 적대감 또한 종교생활에 쏟아져 들어가서 커바일 지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종교적 자유 침해에 일조한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여성

알제리 여성들은 기독교 여성이 신앙을 이유로 경험할 수 있는 압박이 혼합된 법과 사회에서 불리하다. 이들은 실직, 직장 또는 학교에서 괴롭힘, 성폭행, 그리고 살해 위협(특히 베일을 벗은 경우)에 직면한다. 여성 개종자들은 가족들로부터 심각한 침해에 직면하는데, 이는 구타, 위협, 가택연금, 그리고 강제결혼 또는 강제이혼을 포함한다. 여성들을 중요한 공동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더해, 가족들은 개종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채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압박과 폭력을 고려할 때, 많은 여성 개종자들은 이들의 신앙을 숨기고 비밀신자로 사는 것을 선택한다.

- 사회적 공동체 / 연결망 접근 제한
- 자녀 양육권 제한
- 교육에 의한 차별 / 괴롭힘
- 일/ 직업/ 사업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 종교적 복장 규정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 / 가택연금
- 폭력 - 살인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남성

알제리의 기독교 남성들은 지역사회와 경제적인 압박을 규칙적으로 경험하며 직장과 공용공간에서 괴롭힘에 직면한다. 알제리의 가정에서 남성들은 주요 부양자이기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것은 두려움과 무력감을 조성하고 온 가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 한편, 혼하지 않지만 남성들은 구금될 가능성이 더 높아 근로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들은 보통 신체 구타와 위협과 같이 추가적인 침해에 대한 근원이다. 이들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서 배척과 거절에 시달린다.

- 사회적 공동체 / 연결망 접근 제한
- 일/ 직업/ 사업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집으로부터 강제 내쫓김 / 추방
- 마을 / 국가에서 강제 내쫓김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언어적

알제리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3	19	73
2022	22	71
2021	24	70
2020	17	73
2019	22	70

알제리의 점수는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에 비해 2점 높아졌다. 증가하는 정부의 제한과 교회에 대한 압박의 증가는 더 높은 점수를 초래했다. 보고기간 동안 이전에 문을 닫은 16개의 교회에 더해 4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문을 닫도록 지시를 받았고 활동들이 중단되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은 “사전 승인 없이 예배를 실행하고”, “무슬림의 신앙 흔드는” 것에서부터 “젊은이들의 마음을 훼손하는” 정도의 혐의들로 고발 당하고 형을 선고 받았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압박은 매우 높은 정도를 유지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2022년 4월: 베자이아에 있는 “아우시슈” 교회는 2022년 3월에 총재에 의해 발행된 행정 폐쇄명령 이후에 즉시 예배 모임을 중단하도록 통지를 받았다.
- 몇몇 다른 교회들은 활동을 중단하도록 당부 받았다.
- 기독교인들 15명 이상이 “전도”부터 “사전 승인 없이 예배를 실행”하는 정도의 다른 혐의들로 체포 당하고 고발 당했다.
- 최소 10명의 기독교인들이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정부로부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학대에 직면했다. 몇몇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압박들로 인해 이주해야 했다.

보고 연도	정부에 의해 투옥되거나 처벌 받은 기독교인들	강간당하고/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기독교인들	자국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	공격을 입거나 문을 닫은 교회들 또는 기독교 건물들
2023	19	10*	4	4
2022	4	10*	0	4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수가 주어졌고(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생활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기독교인들은 개종 권유 또는 신성 모독 혐의로 고발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사회로부터 보복에 직면한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와 같은 상징을 내보이지 않도록 조심한다. 알제리의 반개종법과 신성모독법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직계가족들과 사적으로 나누는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 조례 06-03에 의하면 개종시키려는 것은 1-3년 사이의 징역형을 수반하는 범죄 행위이다.

가족생활

이슬람 원리에 기반한 종교 교육은 모든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의무적이다. 많은 경우에, 개종자의 무슬림 남편 또는 아내는 이혼하기 원하거나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강요 당한다. 자녀들은 개종자들로부터 떨어져있게 된다. 입양은 무슬림에게만 허용된다. 아이의 아버지가 무슬림인 경우에 정부는 아이를 무슬림으로 간주한다. 개종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정부에 의해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지역사회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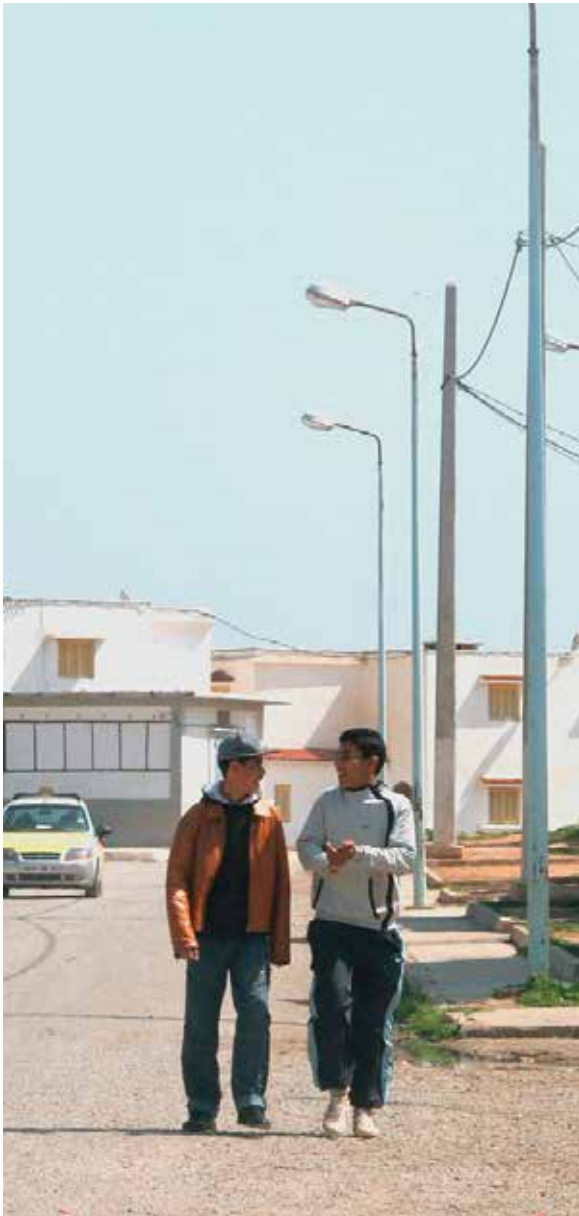
개인,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는 규칙적으로 일어

난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전화가 도청되고 이메일은 읽힐 가능성이 높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건물 밖에서 모이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게 하면 교회들은 지장을 받는다. 비록 기독교가 나라의 전역에서 반대에 부딪히지만, 이러한 압박은 커바일 지역에서 덜 극심하다. 더 보수적인 이슬람 지역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학교 아이들은 이들의 신앙을 숨기지 않으면 선생님들로부터 차별에 직면하고 대학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된다. 이는 특히 알려진 개종자들의 아이들에게 더 그러하다. 이와 비슷하게, 개종자들은 구직할 때 신앙을 숨기지 않으면 차별에 직면한다. 개종자들 아니든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고위직에 대한 접근권이 없다.

국가 생활

알제리 헌법에 따르면 이슬람은 국교이고 정부 기관들은 이슬람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개종자이거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인 경우에 당국들을 상대할 때 차별을 당한다. 커바일 지역의 일부 장소들에서 일부 아이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등록된 것과 같은 약간의 호전은 다시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침해에 시달린다. 이는 정부가 가정폭력을 가족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교회 생활

기독교 모임들은 계속 닫혀있고 정부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로 교회를 약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교회들은 무슬림 젊은이들 가운데서 활동을 조직하는 것과 미성년자들이 홀로 교회를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성인이 항상 함께해야 한다. 조례 06-03에 의하면 기독교 자료를 인쇄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비자를 받고 알제리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알제리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알제리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지도자들은 감시를 당하고 이들의 활동들은 적극적인 주시를 받는다 (ICCPR 제17조)
- 교회들은 정부에 의해 임의로 폐쇄 당한다 (ICCPR 제18조, 제20조)
- 기독교인 여성들과 소녀들은 이들의 신앙을 이유로 강간 당하고 성적 학대를 당한다 (ICCPR 제7조)
-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신앙을 나누거나 전도할 수 없다 (ICCPR 제18조, 제19조)
-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입양하거나 수양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다 (ICCPR 제26조)
- 기독교인들은 잘못 기소 당하거나 신성모독 혐의를 받는다 (ICCPR 제19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알제리 유대인, 아마디 교단, 그리고 시아파 무슬림들은 다양한 수준의 압박과 폭력을 직면한다. 아마디 교단은 '이슬람 신조 또는 계율을 폄하한다'는 범죄 혐의를 포함해 더 극심한 침해에 직면한다. 이들은 공직자들로부터 적대감에 직면하고 협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 당한다. 추가적으로, 무신론자들과 수니파 이슬람 교리에 공공연히 이론 제기하는 이들은 알제리에서 적대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알제리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는 알제리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 지원을 일으키고 있다.

Pathways (un)locked 2023년도 아동청소년 중간 업데이트

아이들은 자랄수록 자신의 장래 직업은 어떠할지, 가정은 어떤 모습일지, 또는 영적인 생활은 어떻게 발전할지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미래를 형성하는 요소가 종교적 박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3년 동안 월드와치리스트(WWL) 국가에 속한 기독교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특정한 종교적 박해(SRP) 연구를 통해 신앙 기반의 차별, 괴롭힘, 그리고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박해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고립시킴, 가혹한, 그리고 정체성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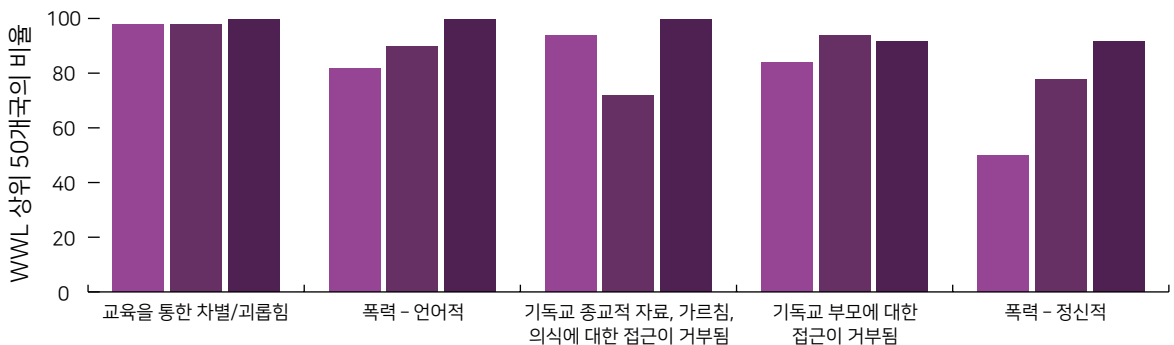
2023년도 결과들은 학교에서의 차별과 괴롭힘, 정신적 및 언어적 폭력, 그리고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어린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행태가 널리 퍼져 있음을 확정합니다. 그들을 신앙으로부터 단념하게 하기 위해 성경, 청년부, 그리고 기독교 가르침 및 자료들의 다른 출처들에 대한 접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각각의 압박 지점들은 아동청소년들의 “길들” 곧 이들의 장기적인 미래를 제한하거나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독교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장 높은 압박 지점은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이었습니다. 더욱이, 학교는 언어적 및 정신적 폭력과 같은 다른 압박 지점들이 발생하는 핵심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마을에 있는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들은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멀리 보내거나 다 같이 마을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현지 기독교인이 이러한 부분이 아이들의 길에 미치는 영향들 중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장기적으로 신자들의 자녀들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특정한 종교적 박해의 영향은 아동청소년들의 가정들, 그들의 신앙 경험, 그리고 미래 생활까지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WWL 상위 50개국 100%가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을 기독교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압박 지점으로 보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상위 압박 지점들: 2021-2023년도



Heart To Heart

WEEKLY

Open Doors

한국오픈도어는 오픈도어위클리 모바일 주간 소식지를 통해서도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간 소식지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채널 추가하세요 +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현장스토리

인도 여러분은 저희를 돕기 위해 보냄 받은 분들입니다

가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집을 잃고, 또 학교를 그만두면서 어린 로샨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데비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녀의 기도제목은 여러분을 통해 응답되었습니다.

로샨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후로 조부모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덕분에 로샨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어린 로샨은 인도의 한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어머니는 영원히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을 했습니다. 순회하던 한 선교사는 마을로 와서 로샨의 어머니 데비에게 예수님을 믿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확신과 믿음으로 “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아이의 미래를 예수님의 손에 헌신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정에게 기쁜 순간이었지만 끔찍한 결과

들을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개종한 것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너의 신앙은 우리에게 망신이 되었어. 너와 모든 유대를 끊을 거야. 너나 로샨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를 부르지마.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너의 신앙을 버리든지 다시는 돌아오지마.”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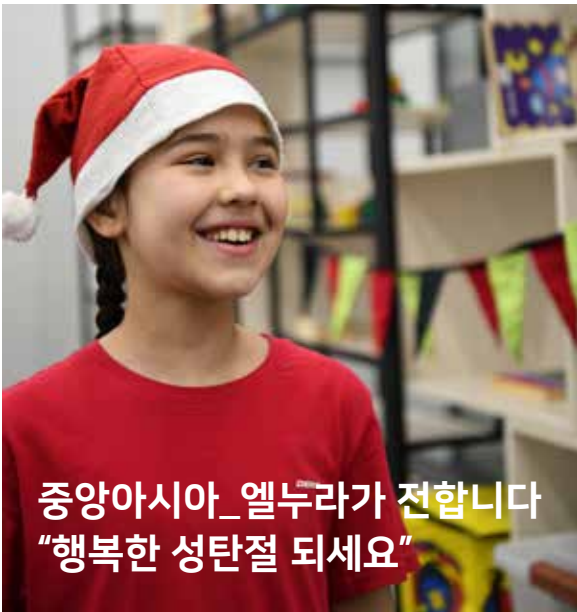
그리하여 데비와 로샨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간 마을들은 전부 그들을 거부했고, 마침내 한 외딴 산림 공동체에서 자신들과 같은 신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마을은 극심하게 가난했고 데비는 자잘한 청소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놀라운 지지를 통해 박해는 로샨의 밝은 미래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이 마을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곧 로샨에게도 있을 곳이 있음을 의미하며, 번창하고 있습니다. 로샨은 이렇게 나눕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을 때는 성탄절에 모든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예요.” 여러분의 지지로 29명의 어린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과 영적인 조언을 얻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종교와 배경 출신이며, 학교는 가족들 간의 평화와 이해를 조성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비와 같은 어머니에게 있어 아들의 안전과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가져주는 것을 알 때,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힌두교 신자일 때 아이들을 위한 기도예 수 많은 제사 의식을 행하고 돈을 헌납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저희를 도우시기 위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 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로샨은 자유로운 교육권과 성장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기쁘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기도해주세요

- 어린 로산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은혜와 믿음을 이해하는데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로산이 다니는 학교에서 섬기는 교사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데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그녀의 놀라운 믿음과 용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계속해서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앙아시아_엘누라가 전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엘누라는 청각장애를 가진 어린 소녀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어린 십대를 지내는 것은 엘누라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청각장애인 기독교인들은 고립되고 사회에 충분히 통합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주 무시되고 많은 이들은 직업을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기에 소득이 없습니다. 이들은 읽거나 쓰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부족합니다. 청각장애인 공동체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신자 공동체들 중에 있습니다. 일부 이슬람의 해석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에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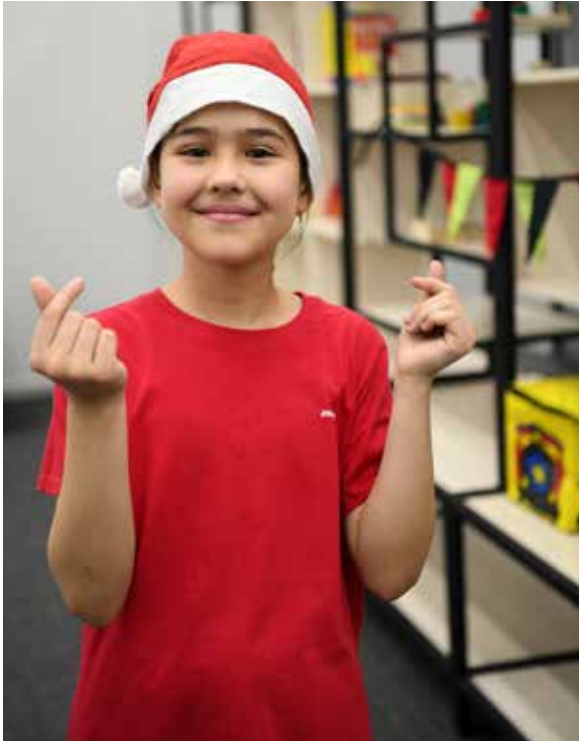
무슬림 배경의 청각장애인 기독교인들은 이들의 장애로 인해 사회에서 이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신앙을 이유로 가족과 현지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도어를 통해 청각장애인 공동체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과 훈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득 창출 훈련, 컴퓨터 기술, 휴대폰 수리 방법, 미용 & 메이크업 훈련, 그리고 성인/어린이 비청각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수화 훈련입니다.

엘누라는 이러한 청각장애인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엘누라는 수화 훈련을 통해 다른 청각장애인 어린이와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로부터 성탄절 선물도 받았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성탄절 선물은 오랜 세월 동안 신자들과 비신자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행사 때 성탄절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기여합니다. 이는 다양한 역할을 가능하게 하며 교회에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 성탄절은 (특히 대다수가 가난한) 일부 가족들이 집을 개방해 형제자매들을 초대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압박 또는 다른 이유들로 인해 교회를 떠난 이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선물과 성탄절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육원과 병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청각장애인 공동체가 자녀들에게 주위를 기울이고자 더욱 의식하고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 엘루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청각장애인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또 다른 청각장애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오픈도어를 통해 공급된 성탄절 선물들이 무시 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어린 청각장애인들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 트라우마를 입은 어린 청각장애인 소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들은 오픈도어 트라우마 상담 전문가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전세계_ 아이들의 단 한가지 성탄절 소원

에자나와 파실 쌍둥이 형제와 같이 이번 성탄절에 박해 받는 아이들이 갈망하는 선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에자나와 파실은 성탄절을 고대할 때면 눈에 빛이 납니다. 놀이, 음식, 노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듣기 위해 집으로 온 손님들로 북적거림... 이것은 해마다 이맘때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시골지역에서 온 이 어린 소년들은 설렘 뒤에 깊은 갈망을 숨기고 있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들의 아이들이 가진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탄절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은 바로 안전한 어린시절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다

쌍둥이 형제가 사는 남쪽 마을에서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은 가차없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들은 살해 위협 쪽지(당신이 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살해할 것이다)가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할 때, 건물로 돌 던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끄찍한 사건에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전도하는 한 무리의 기독교 여성들을 공격했는데, 이들을 땅에 끌고 방뇨했습니다.

현지 교회를 이끄는 요하네스 목사는 이러한 박해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복음주의의 기독교인은 죽어서 부패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같이 두렵고 불안한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이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때는 그 어느 때 보다 힘듭니다.

취약한 피해자들

예자나와 파실의 부모는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에르미아스는 평생 동안 박해에 직면했지만, 그는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아이들이 시달리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저희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응당한 성적을 주기를 거부했어요. 아이들의 성적을 낮추기도 했지만 다른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은 죽어서 부패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교육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보안 없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왜 박해가 신앙을 위협하는지 종종 봅니다. 슬픈 사실은, 예자나와 파실과 같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신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괴롭힘, 신체적 공격, 고립,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거부하는 박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가장 어린 아이들마저 외롭고, 잊혀지고, 그리고 위험하게 느끼게 두고 위험에 처한 교회의 미래를 예수님을 따르기 가장 힘든 곳들에 처하게 합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 실명과 사진은 대체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 선물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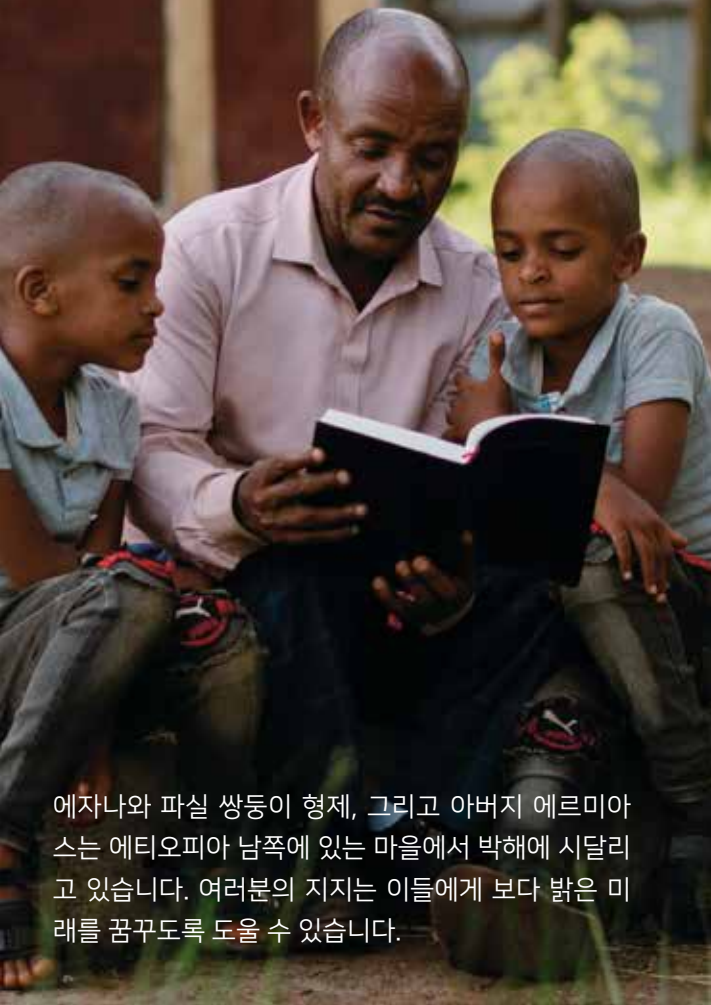
오픈도어 덕분에 예자나와 파실의 교회는 구내에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도 연결이 되었고 지금은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자나는 병긋병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있고, 배우는 게 정말 좋아요.” 학교는 기독교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도 받아들입니다. 이 같은 관용의 실천은 인식을 돌려놓았습니다. 요하네스 목사는 “사람들은 저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좋아해요. 교회에 돌을 던지던 가정들은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예자나와 파실은 곧 졸업을 할 것이고, 아버지는 그 다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겠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요. 저희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은 복음을 위한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이 어린 쌍둥이 형제와 박해받는 다른 아이들에게 안전한 어린시절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는 아이들이 보호 받고, 공급 받고, 그리고 교육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통해 예자나와 파실과 같은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며 강하고, 회복력 있고, 그리고 용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 에르미아스가 전합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을 위한 다음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갈 사람들이며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1서 1:5



에자나와 파실 쌍둥이 형제, 그리고 아버지 에르미아스는 에티오피아 남쪽에 있는 마을에서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이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꿈꾸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박해 받는 한 아이에게 안전한 어린시절을 선물해 주시겠어요?

오픈도어를 통해 박해 받는 아이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보통 박해 받는 교회의 아이들에게는 다른 자선단체들이 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픈도어를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

이는 학교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는 트라우마 상담과 치유 캠프를 포함합니다.

안전

여러분은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한 공동체 공간들을 공급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교육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에자나와 파실이 다니는 곳과 같은) ‘브리징(bridging, 가교)’ 학교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학교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들을 조화시키기 위한 중립적인 장소로도 공급됩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가장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지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훈련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제대로 훈육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들어보세요
오픈도어_Open Doors South Korea 유튜브 채널
검색 후 영상 시청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선물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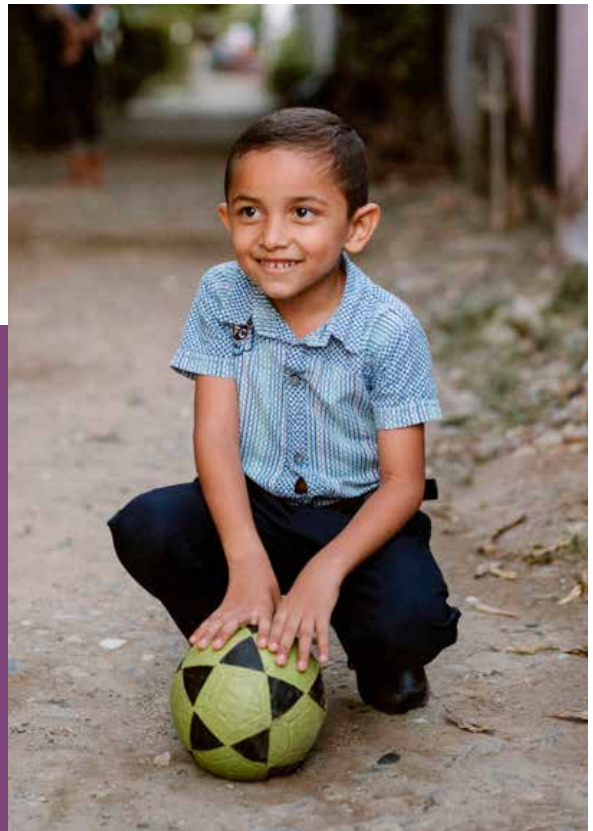
5만원으로 박해 받는 아이 한 명에게 트라우마 상담을 공급하여 희망과 치유를 선물해줄 수 있습니다.

10만원으로 극심한 박해로 영향을 받은 세 가정에게 필수적인 비상식량을 선물해줄 수 있습니다.

15만원으로 박해 받는 아이 한 명에게 일 년치 교육을 공급하여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선물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에자나와 파실이 믿음, 사랑, 그리고 지혜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 에르미아스와 같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 오픈도어 파트너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박해 받는 아이들에게 닿아 도움이 가장 절실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Heart To Heart

나의 성탄절 선물

□ (수량: 개) **5만원**으로 박해 받는 아이 한 명에게 트라우마 상담을 공급하여 희망과 치유를 선물합니다.

□ (수량: 개) **10만원**으로 극심한 박해로 영향을 받은 세 가정에게 필수적인 비상식량을 선물합니다.

□ (수량: 개) **15만원**으로 박해 받는 아이 한 명에게 일 년치 교육을 공급하여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선물합니다.

1. 선물하고 싶은 항목들을 체크해주시고 옆에 수량을 적은 후 사진을 찍어주세요

예.  (수량: 1 개)

2. 선택하신 선물들의 총 금액을 한국오픈도어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입금 계좌: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입금하실 때 예금주명에 '성탄절' 이 세 글자를 추가해주세요)

3. 선물 내역(선물 선택 항목 사진)과 송금 완료 메시지를 편하신 방법으로 전달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1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Merr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예자와와 파실이 성탄 인사를 전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쌍둥이 형제의 가정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 집으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이들을 박해했던 이웃들마저 말이죠.

"성탄절에는 저희가 선물로 받은 새 생명에 대해 생각하곤 해요. 저희에게 정말 큰 간증이죠."

아버지 에르미아스가 나눕니다.

한 해 동안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의 성탄절도 기쁨으로 빛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 요한1서 1:5 -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